

2012 - 2013

우치치

우치

레지던스-L
최수환

RESIDENCE-L
Swann C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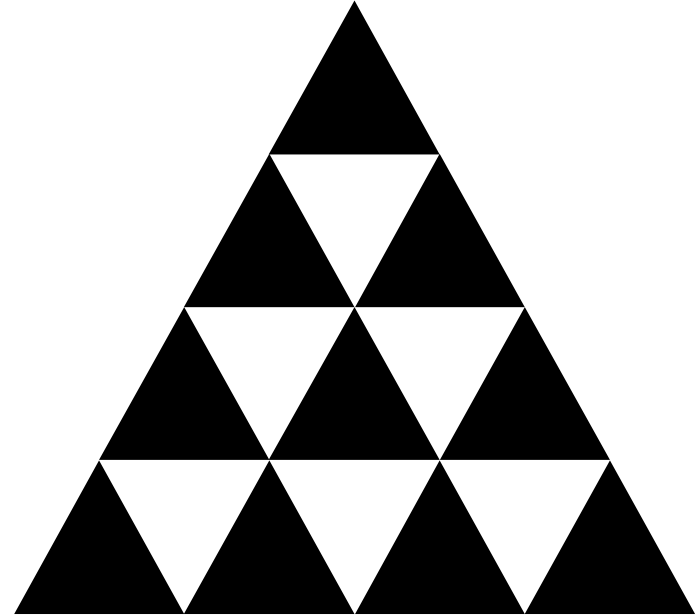
LIG문화재단 레지던스-L은
국내 중견급 공연예술인들을 위한
2년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고유한 예술적 지향점을 제시하며
괄목할 만한 창작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앞서가는 예술인
지원을 위해 2010년에 출범한
프로그램이다. 일회성 제작지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뜻을
담아 새롭게 시도되었으며,
선별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집중성),
약 2년간(장기성), 각 예술인의
계획에 따라(자기주도성) 제작 과정
전반을 지원을 하는 것이 주요한
운영 원칙이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단체가 아닌 개별 예술인의
다양한 창작 방식을 지지하고 있으며,
예술인들 스스로가 운영하는
지속적인 창작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2기(2012-2013)

작곡가 최수환
연출가 김철승
안무가 류장현

1기(2010-2011)

작곡가 장영규
연출가 강화정
안무가 밝닝쿨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吾何以知衆甫之然哉, 以此”

- 노자

거짓말의 즐거움

이것이 거짓말이란 것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직 거짓말이 아니라네

아름다움에 대한 진정한 사랑

“길버트: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평하기는 힘들다네.

어니스트: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열심히 잡담을 늘어놓는 지루한 예술잡지 따위는 없었어.

길버트: 나는 내가 오해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네.

어니스트: 그렇다면 삶이란 실패란 말인가?

길버트: 예술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네. 그리고 이 예술적 관점에서 볼 때 삶을 실패로 만드는 주된 요소는, 사람은 정확히 똑같은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라네.”

- 오스카 와일드



Random Elements 60 (2002)

그 순간 모두 열셋이 있었다

60개의 조각

온전한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두 개의 다른 규칙을 가진 장치들이 만들어낸 60개의 조각이다. 마치 두개의 축을 따라 회전하는 톱니바퀴처럼 이 장치들은 60번째 순간에 끝나 시작을 반복한다.

소용돌이 꽃

“하늘의 나쁜 기억력을 진심으로 찬양하라!

그리고 하늘이 그대들의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는 것을 찬양하라

그대들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 베르톨트 브레히트

비누강을 유영하는 사과들

생명을 다한 모든 것이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 그 강가에는 진홍색 사과들이 시간의 사슬을 끌고 있는 영혼들과 함께 유영하고 있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한동안 계속 미소를 머금고 있기도 했다.

룰루와 살로메

“나는 당신의 거울이 되겠어요”

- 벨벳 언더그라운드&니코

이 아름답고 날카로운 가시들

.....그것은 청각의 확장이기도 하고

상상 속의 소리 풍경이었는데도 모른다. 나뭇결을 따라

들려오는 리듬감 있는 움직임, 비밀스러운 웃음소리,

홀로그램처럼 떠오른 이미지, 오한처럼 느껴지는 끈의 진동.

이 우주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세 번째 행성

다음으로 도착한 세번째 행성에는 위대한 아나키스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첫째,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알 것

둘째,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것”

사서, 큐레이터, 디제이 (2012)

과거의 책들을 뒤적이며 기억의 목록을 정리하는 사서처럼,
이미지에 묻혀 있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큐레이터처럼,
소리와 함께 공진하는 기억을 탐색하는 디제이처럼

지식 리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시간에 동일한 틀에서 만들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 르 꼬르뷔지에

진동의 이중성

우리는 모두 우주인이며, 우주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우주는 밤이 되면 운동을 시작한다. 밤이 되면 현실과 비현실의 시공간이 병치되고 약 250만 광년 밖의 우주가 우리의 가슴 속으로 워프한다. 우리의 우주인들은 익숙함과 낯설음, 호기심과 두려움의 사이에서 장식된 사물에 영혼을 결합하고 있다. 아직까지 가장 잘 만들어진 것에 제값이 매겨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수집할 만하고 희귀하며, 귀중하고 아름답다. “이 장식품들이 이러한 혼란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고양이들

몽마르뜨의 검은 고양이와 슈뢰딩거의 고양이

우주적 우연과 여섯 개의 우주 상수

우리의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누군가의 세심한 손길에 의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다. 이 신비한 원리를 설명해 줄 열 개의 숫자들 중에서 인류는 여섯개를 발견하였고 그것은 입실론과 오메가와 람다, 그리고 N, Q, D 이다. 이 숫자들은 생각하는 존재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중 하나라도 틀려졌더라면 우리의 우주는 다른 보편적 우주 중 하나로 남게 되었을지 모른다. 예를 들어 우주배경 복사의 불규칙성을 나타내는 Q는 10의 -5제곱의 숫자를 가지는데 이보다 조금만 더 컸더라도 우리의 우주는 주변의 물질들을 마구 잡아먹는 거대한 블랙홀로 진화했을 것이다.

오메가와 암흑물질

11차원 초중력이론의 무한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다중우주를 연결하는 끈을 통해 전달되는 미세한 진동에서 우리들은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면, 시간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뿌옇게 퍼져있는 소리의 풍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레나르트의 측정 (2013)

세 개의 빛원뿔과 세 명의 관측자와 전자구름이 있는 소리풍경

세 명의 관측자들

“한 줄로 셋, 때로는 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또한 어떤 것은 따로 홀로 떠 있었고
그런 구 사이에는 킷빛의 십자가가 보였다. 그 밖에 둘의 큰 관이 있었고 작고 큰 관 속에 셋 또는 넷,
혹은 더 많은 구들이 삼각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 '뉘른베르크의 소책자'에서

그리고, 전자구름

이름을 가지지 못한 존재들

60번째 우주의 시작

이것이 60번째 우주의 시작이며

소리의 알갱이들은 잔향이 되어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일과 이분의 일과 삼과 사의 공명을 거쳐

소리와 빛과 전자구름과 몸의 진동은 60번째 우주의 원점을 향해 수렴합니다

모든 신비에 관한 책

“내 몸은 순수한 기계로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기능한다. 하지만 나는 명백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동작을 한다. 그 결과는 운명적일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 마르틴 하이데거

작곡가 최수환은 LIG문화재단의 레지던스-L 2기 아티스트로 참여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연구자적 태도로서 관심분야에 관한 탐구를 수행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그의 경험 속에서 떠오르는, 혹은 훈련 받았던 무언가를 되새기고, 무언가 쌓여있는 기억들로 재구성된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플롯을 갖춘 것이 아닌 파편화된 구성이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지금' 작곡가 최수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키워드로 도출해 도록으로 엮는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 공연의 잔상일 뿐이다. 지난 공연들의 실제의 흔적을 되짚어간다고보다는 또 다른 영감으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자 한다.

작곡가 최수환은 1990년대 중반 포스트락/전자음악 밴드인 옐로우키친^{Yellow Kitchen}의 리더로 다수의 음반을 발표하였고, 2011년 솔로음반 <Dispersion Temporelle>을 발표하였다. 2012-2013년 LIG문화재단 레지던스 작가로 활동하면서 <우주인을 위한 배경음악 60>(2013), <레나르트의 측정>(2013), <우주인을 위한 배경음악>(2012), <사서, 큐레이터,

디제이>(2012) 등의 작품을 올렸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의 작업들과 생각들을 정리한 연구 보고서인 <소리가구 이야기>를 발행할 예정이다.(2014년 2월 예정)
그는 이 외에도 <11차원의 구>(2012), <투명한 동전들>(2011), <Sonic Carousel>(2010), <자동기계들의 밤>(2010) 등의 공연 및 설치 작품을 진행하기도 했다.



LIG문화재단 / LIG아트홀
작지만 무한히 열려있는 창작 공간
LIG아트홀은 1998년부터 젊은 예술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던 LG화재가 2006년 LIG손해보험으로 CI를 공식 변경하고 강남 신사옥으로 이전 하면서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기업메세나 활동을 위해 설립한 소극장이다. 공연, 전시, 세미나, 예술강좌 등 현대공연 예술의 다채로운 현상을 담아내고 있으며, 예술 향유자와 창작자간의 의미있는 상호교류를 통한 창조적 재생산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09년 설립된 LIG문화재단은 LIG아트홀·강남 / 합정 / 부산의 운영 주체로써 공연 예술창작현장을 지원하고 동시대 공연예술의 다양한 형식과 가치를 전달하는 창조적인 프로 그램을 소개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레지던스-L 20212-2013
최수환

발행일
2014년 2월 24일

발행처
(재)LIG문화재단
121-885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LIG합정빌딩 24층
t. 1544-3922
www.ligarthall.com

편집
염혜원

디자인
신태호(shindokho.kr)

인쇄
삼원프린팅

LIG문화재단

이사장
구자훈

기획실장
우연

공연기획팀 기술관리팀

팀장 팀장
주재은 박범진

프로듀서 무대감독
배재휘 이경수, 전우열

홍보 매니저 음향감독
박은영 김성환, 김호엽

마케팅/ 조명감독
프로젝트 매니저 이관형, 강신규,
조성원 서승희

공연장운영 운영관리팀

매니저 팀장
박현진 유정

홍보/하우스 운영관리 매니저
부매니저 김은경
조유림

심화

이 책은 LIG문화재단의 예술가
지원프로그램 '레지던스-L'
2기에 선정된 작곡가 최수환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LIG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만든 작품들의 결과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다



LIG 문화재단

LIG ART HALL